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유진규
마임이스트·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로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술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금들이 기초예술과 순수예술 작업보다는 지역민,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과 어떻게 함께 나누고 있는가가 주요 관심사이면서 기존의 척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뒷전으로 미루고 국민문화 융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과도처럼 밀려오니까 예술가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문화융성의 중심축은 문화예술인이다

이다. 예술의 존재가 예술가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볼 때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은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문화가 '땅'이라면 예술은 거기에 피는 '꽃'이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꽃을 재배하면 예술은 제품이 되고 만다. 몇 달 전 한 무명 연주가가 '파국'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그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공연 활동도 해오고 있었다. 또 어려운 운데서도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재능 기부까지 하면서 젊음을 공연예술에 던졌다. 하지만 그가 최종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그들이 땅에는 그러한 잠재적 자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문화예술가들이 겪는 빈곤은 도를 넘어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있다. 국내 문화예술인 6%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26.2%는 한 달 동안 아예 수입이 없다고 한다. 사실 예술가들도 하나의 인간이며 자신의 생명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

떤 복지정책이나 지원금에 기대만 하는 것은 본질과 자존심에 맞지 않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예술은 '예술가 내만의 표현'이고 그것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에는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쓰여 있다. 예술가는 '복지'가 아니라 '자유'를 먹고 산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뺨"을 위해서 자본과 정치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검열하는 모습은 배고픔에 비굴함만 더하게 할 뿐이다. 지난해에는 '세월호'가, 올해는 '메리 스'가 이 나라를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국내 예술계도 맥없이 거기에 휩쓸렸음은 물론이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오아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기어간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노동하러 나가고 들어올 때 입구에서 연주를 하던 음악인들을. 그 모습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동족들을 위한 음악이기도 했다. 가공인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 예술가들은 죽음을 아름답게 연주하며 마감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예술행위는 그런 것이다. 괴질이 돌든, 전쟁이 나든, 예술인들은 그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아름답게 해 주었다. 그런데 최근 이 나라의 예술과 예술인들은 정치와 자본 앞에서 말을 잘 듣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같이 적잖이 씁쓸하다. 자율적인 예술가들의 행동은 허거되지 않고 있으며, 예술가 스스로도 무릎을 조아리고 있는 듯하다.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서 국민이 행복한 문화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철학 아래 최근에 예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변방연극제'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예술은 권력과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과 함께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예술의 자율성을 위해 '풀뿌리 모금'으로 축제를 치르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벌어지는 예술가들의 행동에 꺼지지 않는 불의 희망을 바라본다.

社說

금호타이어 이 어려운 판에 파업 결의라니

지난해 5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가 올해 또 다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가 임금인상 협상안을 놓고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와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임금 교섭안은 임금 970원(일당) 정액 인상, 올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8.3% 정률 인상과 지난해 경영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회사가 매출이 오르고 영업이익을 많이 낸다면 사측이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백번 옳은 일이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대내외적 기업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올해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천연고무 가격 인상,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지난 1분기 매

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2%가 줄었고, 영업이익도 48.5%나 감소했다. 이번 파업 결의를 두고 대체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역시, 회사가 이처럼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파업이 진행되면 회사와 임직원은 물론 지역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실제 파업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사 모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 하락으로 임금을 동결했다. 다른 타이어업계 경쟁사도 경영환경 악화를 대비해 고작 1% 수준의 임금인상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금호타이어 역시 노사 양측 모두가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이라는 아픈 경험을 삼키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합의 잘한 일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엔 통과된 개정안에는 '태완이 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그 이유는 길거리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 미제 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는 현행 25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는 시간의 제약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에 종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바 있다. 공소시효 제도는 시일이 흐르면 유무죄 증거도 흐려지는 한편, 새로운 사실관계에 준종하는 게 더 정의를 수 있다는 경험적의 법적 표현이다. 그러나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의 예방 필요성과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에 따라 이런 공소시효 자체가 정의

롭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엔 '도가니법'으로 불려 법위헌토록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엔 통과된 개정안에는 '태완이 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그 이유는 길거리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 미제 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는 현행 25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는 시간의 제약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에 종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바 있다. 공소시효 제도는 시일이 흐르면 유무죄 증거도 흐려지는 한편, 새로운 사실관계에 준종하는 게 더 정의를 수 있다는 경험적의 법적 표현이다. 그러나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의 예방 필요성과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에 따라 이런 공소시효 자체가 정의

의료칼럼



강채미
백달나무한의원 원장

가벼운 걸음에도 출렁거리는 뺨살과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팔, 다리의 풍만한 살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비만은 각종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유방암, 자궁경부암, 불임 등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아비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이들의 비만은 방치할 경우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성장하면서 지방세포의 부피뿐 아니라 개수도 함께 증가하는 까닭이다.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몸 안에 독소가 쌓이면서 시작되는 질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인체 기능을 저해하는 해로운 독성 오염 물질들이 물과 음식, 공기, 전자파 등에 의해 체내

여름철 비만 탈출하기

에 축적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들은 간의 담관에 각종 유해물질과 함께 쌓여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체내 독소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는 기관인 간이 노폐물들로 인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비만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유해물질을 해소하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간 해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몸속 노폐물을 정화함으로써 비만체질을 개선하고,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S라인 몸매'가 바야흐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만연되고 있다. 특히 과감한 노출이 마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무리하게 굶거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거나, 지방흡입 수술까지 감행하는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옛말처럼 탐나는 S라인의 몸매를 위해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의학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그토록 꿈꾸던 S라인을 포기해

야만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충분히 건강하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바로 해독다이어트다. 균형 있는 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이 연소하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내 독소를 빼주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모르고 먹고 마시는 동안, 카페인과 같은 각종 유해 성분들은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해독을 통해 독소를 안전하게 배출시키고 신체 불균형, 만성 변비, 신진대사 기혈순환 이상 등 비만이 되는 내과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무가내로 굶거나 힘을 들이지 않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맞춤형 비만 치료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름철에는 가능한 한 바깥에서 오래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면서 생성된 열은 즉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는데 외부 기온이 높으면 열이 쉽게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온이 높으면 체온이 쉽게 오르고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부 끝으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가면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해 일상병에 걸릴 수도 있다. 수영, 아쿠아로빅 등 물에서 하는 운동은 열 발산에 도움이 된다. 부력으로 몸에 실리는 부담이 적어 관절이 약한 50~60대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덤벨 운동을 하면 쉽게 근육이 생겨여름 나기가 한결 수월하다.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탁구와 테니스 등도 여름에 적합한 운동이다. 탁구는 따가운 햇살과 자외선의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할 경우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테니스를 한 낮에 하는 것은 금물. 실내 코र्ट에서라면 팬클럽팅 실외에서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이 적당하다.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은 걷기와 자전거타기가 있다. 단, 햇빛이 강한 한낮(오전 11시~오후 3시)을 피하고 준비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피부와 얼굴에 자외선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한다. 체내 독소를 배출해내는 해독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올 여름 살과의 전쟁은 백전백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 고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차장

1800년대 말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던 소년 하이먼은 집이 가난해 상급학교에 가지 못했다. 뛰어난 그림 솜씨로 사람들의 인물을 그려 주며 돈을 벌던 하이먼은 그림을 그릴 때 지우개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필 끝에 실로 지우개를 연결하여 사용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금의 '지우개 달린 연필'을 만들었고 특허를 내어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융합(convergence)을 얘기 할 때면 자주 회자되는 하는 이 이야기는 융합을 통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을 독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사실이 글은 행정 융합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

이제는 융합행정의 시대

지만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은 며칠 전 MOU 관련해 다른 기관과 전화를 주고 받았던 상황에서 연유한다. 처음 전화를 받았던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연결했다. 어느 다른 부서와 연결이 되었지만 그 부서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관련 부서를알려 주시면 그 부서로 다시 연락하겠노라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기관은 문화와는 관계가 없는 기관인데...'였다. 오후 여섯시가 넘어가고 있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당장 MOU를 맺자는게 아니고요. 서로 무엇을 하는지, 함께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지, 각기 잘하는 것이 있어 역할분담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겠지요.' '구애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만 말고 좀 만나 보고 나 떠나지, 원...'이라고 혼자말을 했다. '내일 아침 다른 부서로 전화를 해보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2013년 문화융성 원년에 제정된 문화 기본법 제3조에서의 '문화'에 대한 정의가 떠올랐다. '문화'의 정의는 이랬다.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

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다. 그런데 그동안 문화가 가치 중심, 삶의 질 중심이 아니라 너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 되어진 것도 문화가 다른 세상이라니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융합행정의 한 예로, 부처주의(Departmentalism)의 전형이었던 전통 영국 행정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각 부처를 중심으로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었고 각 부처는 종종 특정 전문직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각 기능별 정부의 대책주선에 있어서 효율적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처주의의 약점들이 부각되었다. 지금의 정책 문제가 갈수록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되고 정책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접근함으로 인해 문제 해결의 부담을 서로 떠넘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각 부처가 속한 문화(위에서 언급된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살펴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바라보고, 먼저 다가가 마주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그러나 융합은 예술(art)이라고 했나보다.

명 :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들이 분절되는 것을 막고, 여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시민고객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행정 과정의 개선'을 의미한다. JUG는 조직구조의 설계, 예산의 배정, 목표의 설정, 일상적인 일선행정의 수행 등 영국 행정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융합 행정이 펼쳐질 습지는 않겠다. 지금의 현실은 워낙 다양한, 이질적인 정책 현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통을 기대해 본다. 소통은 글자 그대로 '막힌 것을 터버린다'는 뜻의 소(疏)와 '새로운 연결'을 뜻하는 통(通)의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고정된 삶의 형식을 극복하여 새로운 연결과 연대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타자가 속한 문화(위에서 언급된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살펴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바라보고, 먼저 다가가 마주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그러나 융합은 예술(art)이라고 했나보다.

無等鼓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이 무서워 마지 못해 일기를 쓰곤 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거쳐 성인이 되어서 까지 일기를 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에 무려 72년이나 일기를 쓴 사람이 있다. 일흔 살을 넘기게 어려운 시대에 72년 동안이라니, 당연 세계에서 가장 긴 일기일 것이다. 조선 후기 문신 정원용(1783~1873)은 72년에 걸쳐 17책에 달하는 일기를 썼다. 이를 묶은 것이 경산일록(經山日錄)이다. 정원용은 19세 되던 1802년(순조 2년)에 과거에 급제해 죽을 때까지, 순조·헌종·철종·고종 등 네 명의 왕을 모시며 72년 동안 벼슬을 한 인물이다. 1841년 우의정에 제수된 이후 30년 가까이 재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급제로 사관(史官)이 된 1802년 10월부터 죽음을 맞이한 날인 1873년 1월 3일까지 일기를 썼다. 벼슬을 하기전의 일도 기억을 더듬어 기록했기 때문에 경산일록은 사실상 그의 90평생 모두를 기록한 일기다. 정원용은 외척 세도정치가 극성이던 철종·고종 시대에 안동 김씨가 아니면

서도 30년 가까이 재상을 지낸 정도로 정치력과 청렴함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 이전에는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반성하고, 인품을 닦은 노력이 작용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경산일록과 함께 유명한 조선시대 일기로는 역시 난중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란이 일어난 다음 달부터 시작해 전사하기 전일까지의 일기로, 임란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자료다. 또 안해 프랑크의 일기는 세 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10권의 책 가운데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일기를 숙제로 내준다. 일기 쓰기를 싫어하는 자녀 탓에 학부모들이 대신 일기를 쓰느라 진땀을 빼는 게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모습이다. 귀찮을지 모르지만 일기를 쓰면 개인의 일생을 변화시킨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일기 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과외보다도 중요하다. /최희승 사회팀장 chae@

방학과 일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